들녘 넓고 풍족했던 마을… 도시재생으로 옛 번영 찾길

류복현 전 광산문화원장 원도산마을 역사 특강

조선 중기 보성 선씨 집성촌으로 시작
기름진 들판… 풍년 땐 온 동네 잔치
1964년 공군 비행장 들어서며 급 쇠락
진정한 도시재생은 공동체 문화 회복

한평생 원도산 마을을 지키며 언론인으로, 향토문화 연구자로 살아온 류복현 전 광산문화원장(76)이 원도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지켜보는 심정은 각별하다. 군 비행장이 들어서기 전 풍요로운 농촌마을의 정경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류 전 원장은 광주에서도 가장 낙후된 마을로 꼽히던 이곳이 문재인정부의 인본주의 철학이 가미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인심과 주민상호간의 관심, 협동, 배려가 살아나는 공동체로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류전 원장은 지난달 5일 '도시재생 원도산마을 신문'을 제작 중인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산구와 원도산마을 역사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를 간추린다. 〈편집자 주〉

원도산마을 토박이인 류복현 전 광산문화원장이 원도산 도시재생 신문을 제작하는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원도산 마을은 조선 중엽 보성 선(宣)씨 일족이 농지를 찾아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했다고 전해진다. 전체 마을 호수 약 150여호 가운데 1백여호가 보성 선씨들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마을복판에 동산 형태를 한 둥근 언덕이 있어 '둥글뫼' '도루메' '도르뫼' 등으로 불렸다. 이를 한자로 적어 '원산(圓山)'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 언덕은 1970년대 까지도 존재했다.

그런데 이곳은 조선 중엽 때까지만도 넓은 강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루메'라고 부르는 작은 산도 큰 강에 연접한 둥그런 모양의 작은 상이었는데 이 산은 나주 나(羅)씨 세장산이었으며 당시 나씨 후손들은 성묘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건너 다녔다는 구전이 있다. 이 지역이 강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듯 지금도 지하를 굴착하면 고운 모래와 조개 껍질 등이 많이 출토된다.

조선후기엔 광주군 고내상면에 속했던 이 마을은 기록에 도신촌(道新村)으로 확인된다. 인근에 용보촌(龍伏村)·도상촌(道上村)·도하촌(道下村)·산정촌(山亭村)·수성촌(水城村)이 뒤로 있었다. 지금의 원도산 마을은 도산동의 중심 마을에 해당한다.

광주시동연혁지(光州市洞沿革誌)나 광산 마을사를 보면 원도산 마을은 도산동 자연마을 중에 제일 큰 마을로 '도산동' 이란 지명이 나오기 이전부터 '웃 도르뫼'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도산리가 원도산과 중도산으로 분리 되었는데 일제가 시설한 농업용수로를 기점으로 나눈 것에 불과할 뿐 두 마을은 한마을과 다름없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원도산 중도산을 비롯한 인근 촌락들은 고내상면 일부와 동각면 일부가 합쳐서 광주군 송정면 관할의 도산리가 되었다. 1935년, 광주군에서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되어 빠져나가면서 광주군은 광산군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도산리는 광산군 송정면 관할로 개편되었다.

1986년 전남 광산군에서 송정읍이 송정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상 큰 변화가 발생했다. 종전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일대에 확대 분산되어 있던 원도산, 중도산, 북쪽으로 신도산, 서쪽으로는 서동마을, 남동마을, 황룡마을, 수성마을들이 모두 송정시 도산동으로 통합된 것이다.

원도산을 한자로 元道山이라 적는 것도 이곳이 도산동의 시발지란 것을 말해준다. 송정시 도산동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88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광산군과 함께 송정시가 광주권역에 편입되면서 광주직할시 광산구 도산동으로 또다시 개편되었다가 1995년 광주광역시로 개칭된 이후 오늘에 이른다.

해방 후 번성하던 도산리가 갑작스레 쇠락한 것은 1964년 공군 제1전투비행사령부가 인근에 설치되면서 부터다. 남북대치가 살벌할 때인 당시 이지역은 미 공군 주둔병력과 함께 한반도 남부의 전략요충으로, 유사시 일본주둔 미군등 후방 지원병력의 신속 전개지역으로 대단히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비행장이 들어서자 송정읍과 비행장 입구쪽은 미군부대 주변지역이 띠게 마련인 기지촌 효과로 번성했으나 도산리 주변은 대부분의 농경지가 비행장에 편입되면서 이농이 불가피해졌다.

마을 일대는 군비행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광산군에서 가장 큰 들을 보유하며 제일가는 부자마을로 이름이 난 곳이었으나 농지가 대부분 군부대로 편입되어 마을 일부가 철거되고 전답이 상실됨에 따라 주민들의 상당수가 마을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공군비행장이 들어서기 전 원도산 마을의 정서를 들여다보면 우선 사방이 트인 넓은 농경지가 지평을 이루는 전형적인 호남평야의 농촌이다. 봄이 되면 봄의 서기가 온누리를 덮었고 농민들은 영농준비에 바빴다. 여름철에는 모를 심으며 외치는 농요(農謠)가 그칠 줄 모르고 온 들판이 푸른 초원으로 물들었다.

여름이 농익어간 다음 소슬바람이 부는 즈음에는 농민들이 논가운데 허수아비를 세우고 깡통을 줄에 매달아 흔들며 참새떼를 쫓았다.

가을이 되면 여름 내내 땀 흘려 지은 농사에서 수확이란 보람을 느끼며 민심이 넉넉해진다. 논 가장자리에 억새풀이 하늘바람에 뉘여지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겨울밤 삭풍이 몰아칠 때 고구마를 쪄먹고, 설빔에 민속놀이로 마을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그윽한 인심이 가득했다.

도산동 주민센터 옆 공터에 설치된 마을유래비. 류복현 전 원장이 썼다.

'도루메 마을' 이란 명칭의 기원이 된 원도산마을 내의 야트막한 동산. 2001년까지 존재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마을 한복판의 큰 샘은 온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수원이 대단했다. 어떤 때는 한해가 들어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이 샘물로 농업용수를 보충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게 수원이 풍부한 샘물도 공군비행장이 들어서고 부대에서 사용할 지하수가 개발되자 이내 고갈되고 말았다.

큰 샘 근처에 취락을 일명 '도내기'라고도 했는데 샘 옆에 디딜방앗간이 명물이었다. 디딜방앗간은 갈 지(之)자 형식으로 된 긴 통나무 끝 부분을 넓적하게 만들고, 이 부분을 두 사람이 교대하며 발로 방아를 찧었다. 디딜방앗간은 여름에 보리를, 가을에는 나락을 찧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올벼쌀 등 소량의 양식이 필요할 때만 사용했으며 일 년 양식은 원동기가 설치된 동네 방앗간을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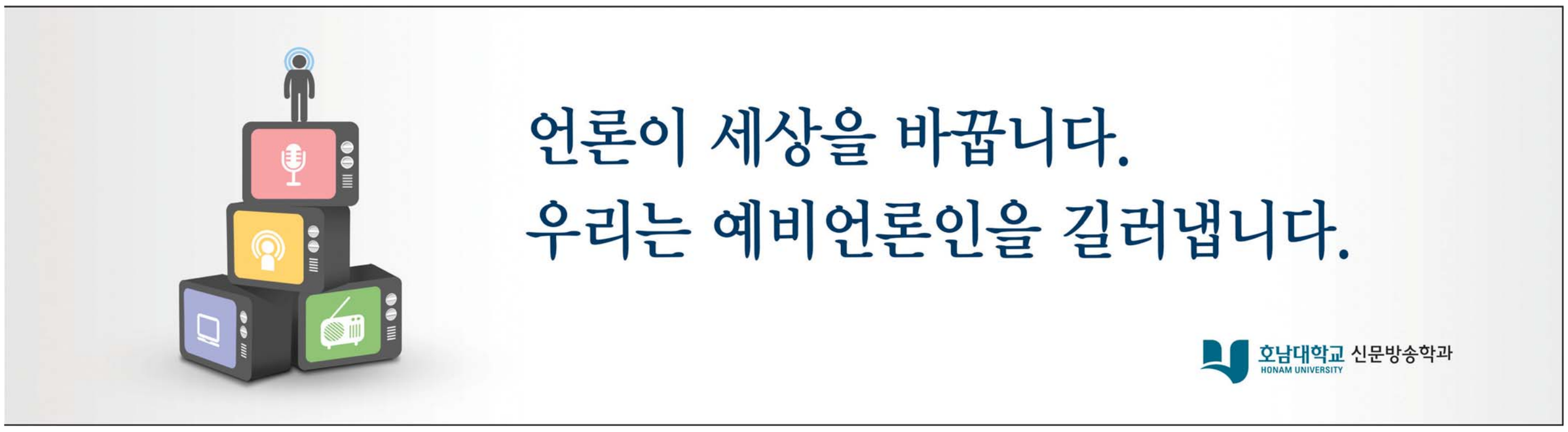
마을 수로를 따라가면 상엿집이 있었는데, 일기가 궂은 날은 귀신과 도깨비가 나온다며 밤길을 무서워했다. 상엿집으로 가는 데 '할미당'이 있었고 듬성듬성 노거수가 있었다. 마을 모서리에 모정이 있었으며 '도내기' 골목을 벗어나면 일본식 가옥이 있었다. 이 집 근처에서 일본인들이 누에치기를 하고 소채밭을 일구었다. 집성촌을 이룬 보성선씨들은 집안 대소사나 특히 상(喪)을 입어 출상할 때는 상여가 반드시 '선거이' 장군 정려(旌閭)에서 거리제를 지냈다.

도르뫼 마을은 웃 도르뫼와 아랫 도르뫼로 구분했는데 아랫 도르뫼는 지금의 공군기지 활주로 자리이며 행정구역상 도호마을로 개명되어 사용해오다가 기지 내로 거의 편입되어 일부 마을만 남아 있다. 웃 도르뫼는 지금의 도산동 18통 자리로 원도산 마을을 의미하며 도산동의 본거지라 말할 수 있다.

원도산마을의 1950~60년대는 집집마다 오남매 육남매가 보통이었고 이 어린이들은 자연속에서 뛰놀았다. 들판에서 뛰어놀고, 자치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 전통놀이를 많이 즐겼다. 특히 명절이면 옆 마을 친구들도 한데모여 전통놀이를 즐겼다. 정월대보름 전날이면 부모님 몰래 장작과 깡통을 숨겨놓았다가 보름날 마을 친구들과 들판에 모여서 쥐불놀이를 하며 불깡통을 높이 멀리 던지는 시합을 하느라 밤하늘이 요란했다. 요즘도 어릴 적 마을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를 만나면 그 시절 이야기를 추억하며 삭막해진 마을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된다.

개발의 뒤안길에 방치되어 쇠락한 원도산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기쁜일이다. 아무쪼록 전처럼 부자동네, 사람 많이 사는 동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도로를 뚫고 집을 고치고 번듯한 공동시설이 들어서는 것 만으로는 '도시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옛 마을공동체의 장점을 되살려 서로 돕고 관심을 가져주며 마을 대소사를 협력해 처리해 나가는 문화가 살아나야 한다.

/정리=나지우 학생기자

마을 연혁

- 조선시대 마을중심에 둥근 야산이 있어 원산, 둥글메, 도루메 등으로 불렸음
- 1789년 고내상면 도신촌
- 1914년 도신·산암·수성리를 합해 송정면 도산리로 개편
- 1935년 광주군에서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되고 나머지 지역은 광산군으로 개칭. 이에 따라 광산군 송정면 도산리로 개편
- 1937년 송정읍 승격으로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로 개편
- 1986년 송정시 승격에 따라 원도산, 신도산, 상도산, 남1동, 남2동, 서동, 황룡리를 합쳐 송정시 도산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1988년 1월 1일 광주직할시 편입. 광산구 도산동 개칭
- 1995년 1월 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개칭